

오후나에 유적

쓰시마의 경제는 17 세기에 이 섬을 통치하고 있었던 소 가문이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했던 시기에 번영했습니다. 나가사키에서 향신료와 소목 등의 열대 제품을 조달하여 조선에 수출했고, 조선에서는 주로 생명주실과 면포, 약용 뿌리 등을 사들여 교토와 오사카에서 판매했습니다.

이 교류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소 가문은 성하 마을 이즈하라의 남쪽에 있는 구타강 하구에 오후나에 선거(船渠)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. 1663 년에 완공된 오후나에는 인공 포구를 이용한 5 개의 선거로 쓰시마와 부산의 왜관[쓰시마에서는 와칸(和館)이라 부름]을 연결하는 무역선의 수리와 정비에 사용되었습니다. 소 가문의 관계자가 에도(현재의 도쿄)와 오사카에 갈 때 사용한 배도 이곳에서 보관되고 정비되었습니다. 만조 시에는 배가 드나들 수 있었고, 주로 간조 시에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.

오후나에에는 5 개의 선거 중 4 개의 돌 제방이 남아 있습니다.